



숲
에
서

묘목, 자연의 섭리를 배우다.

뿌리를 땅에 깊숙이 뻗습니다. 줄기도 단단해 웬만한 바람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미의 얼굴을 닮아 가뭄, 제법 나무다운 태가 드러납니다. 아직은 낮설지만, 이제 자연으로부터 자립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묘목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배
우
다

ISSN 2383-6849



CONTENTS

www.forest.go.kr

이번 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다

04 Prologue

요목, 첫 발을 내딛다

06 Special Theme 1

숲에서 삶을 묻다

자연의 섭리만큼 중요한 교육의 가치

08 Special Theme 2

숲에서 공간을 향유하다

자연에서 살아갈 힘을 되찾다

— 뮤지엄 산

14 Special Theme 3

숲에서 사람을 만나다

여전히 나무를 닦고, 나무와 살고 싶은

— 조연환 전 산림청장



누리다

18 숲이 흐르다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종이

— 계획적인 친환경 별채로 누리는 가치

22 전지적 임업인 시점

수려한 멋을 넘어 입맛까지 사로잡다

— 황칠코리아 정현오 대표

26 자연이 차린 밥상

향긋한 봄내음 가득 한상

— 취나물과 들깨

30 반려 식물 가이드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를 한 번에

— 스킨답서스



배우다

32 산촌에 머물다

내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각양각색 산촌

36 제철 숲 여행

봄계 수놓인 한 떨기의 꽃

— 백련사 동백나무숲

42 숲속 도서관

간편하게 즐기는 도심 속 식물 안내서

— 하루 5분의 초록

46 함께하는 산림

숲의 미래를 위해 날아오르다

— 산림항공본부

50 산림청 소식 / 독자 메시지

2020 1+2월호 독자의견

VOL.34 MARCH + APRIL 2020



COVER STORY

나무가 자연의 섭리에 따르며 삶을 이어가듯, 우리는 사회의 규칙과 체계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삶에는 그러한 학습과 순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Magazine 숲〉에서는 자연의 거대한 질서에 따라 성장하는 묘목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0년 03월 31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 042-481-4074

편집·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Put Down Roots

묘목, 첫 발을 내딛다

포대기로 감싸듯 발을 공공 싸맨 묘목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땅속 깊이 몸을 묻습니다. 발에 닿는 땅의 서늘한 감각이 조금은 낯설지만,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발을 조금씩 저어 봅니다. 발 위로 엉겨 붙는 흙에 발이 가렵습니다. 바람은 수천 조각으로 나뉘어 불고, 묘목은 수시로 뒤척이며 바람을 온 몸으로 받아냅니다. 연약한 몸으로 자주 흔들립니다. 아직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온 마음이 도와야 한다는 말처럼, 주변의 환경은 무척 중요합니다. 막 터를 잡은 묘목은 건조에 취약하므로 마르지 않도록 각별히 돌봐줘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머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분을 머금은 비료를 덧거름으로 뿌려주고, 너무 강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생육에 방해되는 식물 을 숙아 내주는 일도 빼먹지 않습니다. 무사히 자라기 위해선 그 만큼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묘목은 첫 걸음마를 땁니다. 세상에 아주 작고도 견고한 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머지않아 한 두 계절이 찾아들면, 그 계절 동안 병해와 총해 탓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라는 데에 들어는 정성만큼 스스로 감내해야 할 수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시간, 힘들겠으나 가까스로 건너고 나면 비로소 작은 세계를 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숲에 한 줌의 초록을 더할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만큼 중요한

교육의 가치

글 이동혁 풀꽃나무 칼럼니스트

●

자신의 숲에 적응하고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배우면서
숲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무의 삶이다.

어린나무의 시간은 더디 흘러간다. 배워야 할 게 많은 탓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주 적은 양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새롭게 익혀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방대하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건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겪게 될 경험이 건네는 선물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숲은 보수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다. 제 몸조차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나무는 아직 숲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기 어렵다. 숲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어린나무가 증명하려면 좀 더 깊은 뿌리와 단단한 줄기를 만들어 보여야 한다. 발밑에 떨어지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제 어미보다 넓은 잎을 펼쳐내 보이기도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자연환경에 하루 빨리 적응하고 순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제 주변 환경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건 치명적인 일이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나무는 우주에 순환의 주기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머리 위로 흘러가는 시간의 주기를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계절의 흐름도 어렴풋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언제쯤에 새잎을 내면 좋은지, 꽃 필 때와 열매 맺는 시기는 언제쯤이면 적당한지, 그리고 겨울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도 알게 된다. 학습한 내용을 해마다 나이에 기록하고 또 기록하다 보면 축적되는 양만큼이나 베테랑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무는 경험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배우면서 숲의 일원이 된다.

나무는 또 알게 된다.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숲을 이뤄 산다는 건 동종 또는 타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무 자신은 숲과 자연의 일부이며 숲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 자리만큼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숲에 세 들어 살면서 거저먹기란 있을 수 없다. 병충해나 자연재해 같은 커다란 변고가 닥쳤을 때도 자기 몫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숲에 적응하고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배우면서 숲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나무의 삶이다.

사람도 아이 때부터 사회로 내던져지지는 않는다. 미성숙한 시기에는 어른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학습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나무와 달리 사람은 좀 더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거친다. 걸음마를 떼는 단계에서부터 습득하기 시작한 언어를 활용해 사람은 문화와 예절과 사회 규범 등을 배운다. 그렇게 사회질서를 학습한 후에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얻게 된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 규범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건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올바른 교육이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사람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사회 규범을 배우면서 나날이 성장한다.

사회적 동물인 사람 역시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사람 인(人)'자가 말해주듯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건 필연적으로 경쟁을 수반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 규범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게 된다. 자신이라는 하나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라는 다른 세계로 편입해 균형을 맞춰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며 규칙을 따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홀로 존재하지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규범을 배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사회로 편입되는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균형을 맞춰나기면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

자연에서 살아갈 힘을 되찾다

뮤지엄 산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도심 속 혜택을 누리면서도, 가끔은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표준화된 도시의 생활양식이 익숙하다가도 도심의 속도, 도심의 유행에 따르는 것이 마냥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고 치유될 수 있을까. 뮤지엄 산은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글 권용민 사진 김병구

뮤지엄 산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예술과 자연,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정원형 예술관이다. 자연 고유의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건축물의 조형미를 잃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시시각각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인상을 풍긴다. 그러한 풍경 속에서 관람객들은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즐기며 마음을 보듬고 추스른다. 그렇게 뮤지엄 산은 전 시민의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자 치유의 공간이 된다.

소통을 위한 단절

뮤지엄 산은 한술문화재단이 1997년부터 운영하여 온 종이 박물관과 2013년 개관한 미술관을 결합하여 탄생한 복합 예술관이다. 2만 평이 조금 넘는 부지에 빛과 자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예술관이 갖는 특유의 경직된 이미지와 달리 정원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더불어, 자연의 품에서 누리는 예술이 주된 목적인 만큼 본관을 기점으로 각 구조물을 사각형과 삼각형, 원형의 이미지로 구성하여 각각 자연과 공간, 사람을 서로 잇고자 하는 철학을 담았다.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꽃, 물, 돌을 주제로 한 각 공간은 출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열림과 닫힘, 소통과 단절, 바깥과 내부, 인공과 자연 같은



01 신라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 기둥은 9개의 부드러운 곡선의 스톤마운드로 이루어져 있다.
02 어디서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큰 창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03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타워(Communication Tower)'가 본관에 전시되고 있다



●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공간의 표정이
수시로 변한다.

뮤지엄 산은 인간과 자연,
공간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상반된 가치가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안도감을 준다. 뮤지엄 산의 슬로건을 요약하자면, 바로 소통을 위한 단절이다. 그에 걸맞게 뮤지엄 산은, 강원도 원주의 깊은 도로를 타고 해발 275m에 이르러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외부와 단절된 섬처럼, 오직 자연의 속도와 흐름에 집중한 채 관람객들을 맞는다.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연에 머물면서 그동안 잊고 지낸 삶의 여유를 되찾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익숙한 환경에서 잠시 벗어남으로써, 도리어 내가 살아온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자리한 위치를 우선 파악해야 하듯 삶 또한 마찬가지다. 삶의 방향을 잡으려면, 우리가 지나온 길과 흔적들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예술관은 약 25km가량의 직선 코스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하나하나의 영역을 거쳐 감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술관 전체가 또 하나의 작품이자 전시가 되는 것이다. 구획은 크게 5개의 관으로, 플라워 가든에서 시작해 워터 가든, 뮤지엄 본관을 지나 명상관과 제임스터렐관으로 연결된다. 관람객은 각 구간과 구간 사이를 지나며 새로운 영감을 전해 받고, 작은 여유를 즐기게 된다.

건축, 자연을 입다

도시의 유행은 빠르고, 공간은 쉽게 변화하며, 늘 바쁘게 지나간다. 그와 반대로 자연은 변함없으며, 계절에 맞는 주기에 따라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느리게 흘러간다. 때문에, 도심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누리기가 쉽지 않다.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 같다. 뮤지엄 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이 간극에 있다. 잃어버린 삶의 여유와 휴식을 되찾아 주는 것. 자연과 융화되어 설계된 예술관은 그러한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간에 가깝다. 때문에, 뮤지엄 산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균형이다.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연과의 조화다. 뮤지엄 산은 정적이고, 수평적이다. 자연의 흐름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따른다. 뮤지엄 산은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자연을 해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Box in Box'로 구성된 콘크리트 구조는 담과 처마 사이의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은은하게 퍼지며 공간에 따스한 질감을 불어넣는다. 어디서든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큰 창이 있는 곳마다 벤치를 배치하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주기에 따라 공간의 표정이 수시로 변한다. 뮤지엄 산은 인간과 자연, 공간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자연은 건물 외부의 존재가 아닌, 내부에서 다채롭게 체험되는 대상으로 존재한다.

살아갈 힘을 되찾다

예술은 삶 위에서 피어나 삶을 보듬는다. 그와 비슷하게 뮤지엄 산은



04



05

04 뮤지엄 산의 본관 전시관에서는 페이퍼 갤러리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05 종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총망라하여 그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속에 지어져, 자연을 다채롭게 감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살아갈 힘을 되찾는다. 우리가 이제껏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빠듯했던 일상에 한 줌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삶에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극적인 순간이 아닌 흔한 일상을 되찾는 일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2.5km가량에 이르는 예술관의 코스는 하나의 체험 예술 공간과 다름 없다. 천천히 사색하며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공간에는 각 주제를 살린 특색 있는 풍경을 자연경관과 어울려 보여준다. 관람객들은 자연과 문화의 어울림 속에서 문명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다.

더욱 내밀하고 온전한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명상관에 들러 보는 것도 좋다. 명상관 프로그램은 개관 5주년을 맞아 뮤지엄 산의 건축 철학 중 하나인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탄생된 프로젝트로써 영감과 여유로움으로부터 나를 돌아보는 정신적인 휴식, 명상을 제안한다. 신라 고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원 중앙 부근의 갈라진 틈을 따라 자연광이 수시로 은은하게 들어온다. 명상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앉아 시간을 몸소 느껴보는 일이다. 그렇게 침묵에 둘러싸여 숲속의 고요함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풍경과 이 순간의 유일무이함을 오롯이 경험해보자. 몸에 얹힌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결 누그러질 것이다.

아날로그, 그 오래된 가치

뮤지엄 산의 시작은 본래 종이 박물관인 만큼, 페이퍼 갤러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자 문명 및 문화 발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해온 종이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다. 유구한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쓰여 왔음에도, 우리는 그 가치를 잊곤 한다.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는 이유와 비슷하다.

페이퍼 갤러리는 파피루스 온실부터 진행된다. 중정(中庭 건물 안의 뜰)의 개념이 도입된 야외 공간에 설치된 온실에서 관람객은 종이발명 이전의 기록 매체로 활용되었던 파피루스 papyrus를 직접 관찰하며 기록 매체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 한층 깊게 이해하게 된다.

본격적인 종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총 네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전시가 진행된다. 종이의 역사를 다루는 '종이를 만나다'로 시작하여 지승, 지장, 지호, 전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종이 공예품을 감상하며 섬세하게 표현한 선조들을 미감과 종이의 실용적 가치를 다루는 '종이를 품다', 뮤지엄 산이 소장하고 있는 전적류들을 만날 수 있는 '뜻을 품다'에 이어 종이와 문자 그리고 관람객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체험 작품이 전시된 '종이에 이르다'를 끝으로 전시가 마무리된다.

이번 주말에 한 번쯤 예술관에 들러 우리가 이제껏 잊고 있던 삶의 균형을 조율하고 일상의 관계를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산책하며 더 오래 보고 깊게 사유해보자. 그렇게 살아갈 힘을 되찾아 보자. 🌿



뮤지엄 산 오롯이 즐기기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 쌓인 이늑함'이라는 인상을 주제로 설계된 뮤지엄 산은 그에 걸맞게 고유 지형에 순응하며 주변의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느긋하게 거닐다보면 그동안 잊고 지낸 삶의 여유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자 전시품인 겁니다. 뮤지엄 산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각정원 · 플라워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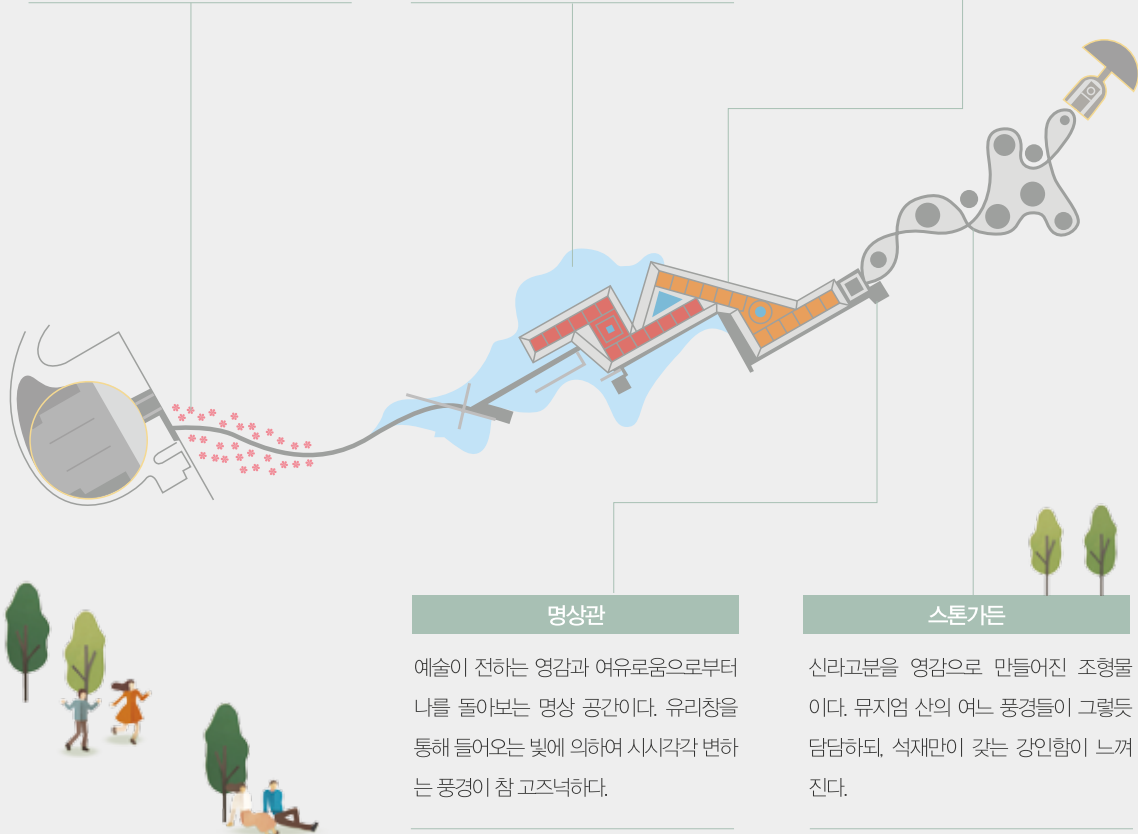
웰컴 센터를 지나가면 잔잔한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 없이 정적인 들뜰위로 군데군데 세워진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느긋한 걸음으로 산책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진다.

워터가든

고요한 수면위로 풍경이 대칭을 이룬다. 물표면 위에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시간이 마치 정지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바람에 간간이 쓸리는 물결만이 그 경계를 허문다. 본관을 휘감은 물결을 따라 걷는 것도 좋다.

뮤지엄 산 내부 · 삼각 코트

뮤지엄 산의 곳곳에 드러나는 조형미는 그 자체로 빼어난 예술품을 연상시킨다. 시간과 계절에 따라 내부에서 비춰지는 풍경은 색다른 감상을 자아낸다.



명상관

예술이 전하는 영감과 여유로움으로부터 나를 돌아보는 명상 공간이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참 고즈넉하다.

스톤가든

신라고분을 영감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뮤지엄 산의 어느 풍경들이 그렇듯 담담하되, 석재만이 갖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여전히 나무를 닦고, 나무와 살고 싶은

조연환 전 산림청장

충남 금산 외곽에 작은 텃밭과 함께 '녹우정(綠友亭)'이란 팻말이 보인다. 초록을 벗삼아 살아온 세월이 바로 저 단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말단 9급 산림공무원으로 시작해, 25대 산림청장직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냈음에도, 조연환 전 청장은 다시 자연의 품을 찾았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산어귀에 터를 잡고 살림을 차렸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닦듯, 조연환 전 청장의 삶에도 진한 숲내음이 배어 있었다.

글 권용민 사진 김병구



Cho Yonhwan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아홉 살에 최말단 9급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해 2004년 제25대 산림청장직에 올랐다.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06년 충남 금산으로 귀촌했다. 지금은 텃밭농사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한적하고 별바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늘 자연에 대해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다시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다

조연환 전 청장의 삶은 늘 자연과 함께였다. 그의 유년시절, 어머니부터가 그랬다. 걸음으로 한 시간 가량을 걸어야 도착하는 밭에다가 오줌을 퍼 나르며 가꿀 정도로 극진히 돌봤다. 당시, 그는 그 수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깟 콩 몇 줌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공부하는 자식을 불러내 일손을 돕게 할 적에는 야속하기까지 했다. 그 정성의 가치가 단순히 값으로 치러질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숲에서 나고 자라며 터득한 귀한 배움이었다.

이토록 숲과 어울려 지낸 지가 거의 평생에 이르니, 공직생활을 마치고 귀촌을 택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 역시 텃밭을 일구는 데에 소질이 있어 마다하지 않았다. 주말농장을 분양 받아 밭을 가꾸고, 여러 작물을 심는 등 온종일 매달렸다. 물론, 그 또한 귀촌에 대한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던 차였다. 충남 금산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재직 중 여러 땅을 보러 다녔어요. 대전을 중심으로 범위를 점점 넓혀가며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려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충남 금산에 내려와 이 땅을 보고선 제 땅이다 싶었죠. 마치, 첫 눈에 반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비유가 아니라 정말 이곳 금산에 흠뻑 빠져버렸다. 금산(錦山)이라는 지명부터 마음에 쏙 들었다. 비단 산이라니…. 산세가 높고 금강 상류의 청정한 물이 어우러져, 좀처럼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 정면

평생을 산림 공직자로
살아왔고 나무와 지내왔는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만큼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못 봤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 자체가
모두에게 베풀고 사는 일이잖아요.

정말 귀한 일이죠.

01 조연환 전 산림청장은 여전히 나무를 심고, 나무와 살고 싶다고 말한다.

02 아내와 함께 여러 작물을 기르며 소소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03 녹우정은 이 집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정자다.

으로 비치는 시원하게 뿜어 있는 산자락이 눈에 사무치게 들어왔다. 적당한 빛을 쬔 눈이 바람에 쓸릴 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때문에, 재직시절 지인과 동료들이 자주 들러 숲의 경치를 감상하고 밭에서 일군 식재료를 가지고 든든하게 먹여 보내는 일 역시 보람찬 일이었다고, ‘녹우정(綠友亭)’이란 이름에 뜻에는 초록을 벗삼아 살아온 세월과 함께 숲을 함께 가꾸어 온 빚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뭐가 됐든, 평생을 숲과 어울려 살아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자연의 가르침

귀촌한다고 해서 절로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다.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피로는 오히려 더욱 가중됐다. 도시의 속도에 적응해 살던 몸으로 자연의 주기에 맞추어 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귀촌 생활에 회의가 들었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다. 오히려 그 힘든 노동 속에서 작은 삶의 단면을 마주하기도, 새로운 배움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골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풀이었어요. 잡초죠, 풀이 없으면, 다른 작물들이 더 원활히 자랄 수 있을 텐데, 그걸 죄다 뜯어내려니 그런 중노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인근 이장님께 하소연을

드렸더니, 풀이 자란다는 말은 다른 작물도 자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말인데도, 참 와 닿았어요.”

그렇게 그는 공존을 배웠다. 없애야 할 대상으로서만 인식했던 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숲은 그를 여태껏 먹여 살린 밥이자, 지금은 또 삶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이 된 셈이다. 그는 자연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태도를 깨우친다. 깨를 털면서도, 밭고랑을 파거나 작물을 새로이 심으면서도, 그게 다 귀한 배움이 된다. 도시 생활에선 흔히 접할 수 없는 노동의 참된 가르침인 것이다. 자리한 환경에서 맞추어 살아가듯,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여물며 성장해 나간다. 가장 좋은 선생이자 가르침은 바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일이다.

숲에서 터득한 깨달음은 고스란히 그의 손을 타고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낮 동안 땀 흘려 노동을 하면서도, 틈틈이 적어놓거나 담아두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꼭꼭 적어 내려갔다. 그렇게 엮은 책이 수권에 달했다. 언어를 빛는 시인이자 삶의 모습을 담는 수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진실은 아주 격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저 흘러 넘기는 일상, 무심코 스쳤던 장면과 살아가는 공간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에서 힐끗 드러난다. 모두 숲에서 배운 것들이다.

“고랑을 똑바로 탄다고 해도, 늘 어딘가가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분명 바르게 한 것 같은데 뒤 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살아온 길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올바르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어긋난 부분이 있겠죠. 밭이나 사는 일이나 전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실수들이 있기에 삶이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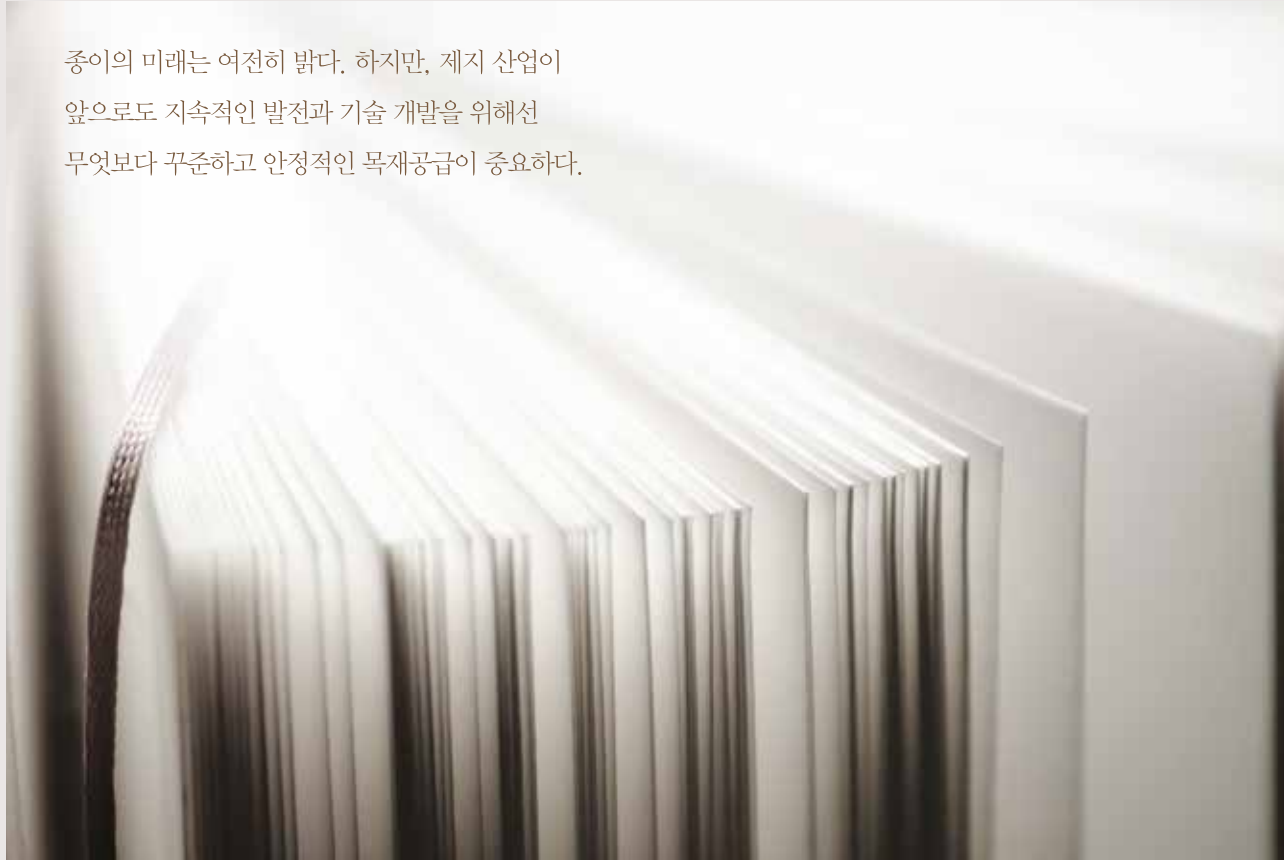
말하는 얼굴에 여러 감정이 묻어난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산지가 벌써 15년이다. 금산에 터를 잡고 살게 된 것은 우연이었겠으나, 이 모든 일은 필연처럼 그의 삶과 함께 이루어졌다. 나무와 더불어 살아온 조연환 전 청장은 이제 나무를 심고 싶다고 말한다. 나무가 사람에게 베풀고 내어주듯 그 역시도 나무처럼 너그럽고, 푸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산림 공직자로 살아왔고 나무와 지내왔는데,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만큼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못 봤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 자체가 모두에게 베풀고 사는 일이잖아요. 정말 귀한 일이죠.”

평생을 산림 공직자로 살아왔음에도, 여전히 나무다운 삶을 바라고 나무와 닮고 싶다고 말한다. 숲에 미안한 마음으로 빚지듯 살아온 것 같라며, 부끄럽게 고백하는 조연환 전 청장. 이미 그의 삶은 한 그루의 나무와 닮아 있었다. 🌳



종이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하지만, 제지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 개발을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목재공급이 중요하다.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종이

계획적인 친환경 벌채로 누리는 가치

목재를 활용한 많은 생활 용품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종이가 아닐까. 인류 문화의 뿌리이자 수세기의 역사를 기록해온 종이는 여전히 목재 자원 소비에 많은 양을 차지할 정도로 그 소비 범위가 넓다.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며 모두가 종이의 종말을 예상하고, 대체재로서의 새로운 소재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종이는 삶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아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와 예술, 지식, 기술 전반에 걸쳐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온 종이, 계획적인 친환경 벌채로 이루어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종이는 어떻게 탄생 되었을까

그렇다면 종이는 어떻게 발명 되었을까.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돌, 청동그릇, 동물의 가죽이나 뼈 등을 재료로 사용했다. 그 중 종이와 가장 유사한 성질을 지닌 재료는 이집트의 파피루스였다. 파피루스 줄기를 얇게 저며 끈기가 있는 액체를 발라 강하게 압착한 후, 잘 건조시켜 기록 수단으로 활용했다. 무려, 기원전 2500년경에 고안된 방법이었다. 이후, 기록에 대한 문화·역사적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해왔다. 중국에서는 대나무를 사용하였고, 붓이 발명되고부터는 비단이 함께 이용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규모가 커지고 경제 활동 범위가 점차 늘어나면서 기록 재료에 대한 변화는 더욱 절실해졌다. 종이의 발명은 「후한서(後漢書)」에 기록된 채륜(蔡倫)이 그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궁중에서 수공품 조달을 맡던 채륜은 기원후 205년 중국 후한(蔡倫)에서 행정과 종교 문서를 보급할 목적으로 종이를 개발하여 황제에게 보고해 포상을 받는다. 채륜이 발명한 제지술은 나무껍질, 헨 어망, 비단, 헝겊 등을 물에 갠 다음 절구통에 찢어 종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초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해 제조비용을 절감하고 대중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지금 사용되는 초지법 역시 이와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진다.

01 종이는 오랜 역사동안 인류의 기록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02 종이는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재탄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이는 어떻게 한반도로 유입되었을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종이는 4~5세기경 유물로 추정되는 평양시 청암 동토성에서 출토된 마지와 대성산성에서 발견된 불경이 적힌 종이다. 종이 제작 기술이 들어오게 된 가장 유력한 시기는 4~5세기 무렵 중국에 의해 불교가 전래(372년)되었을 무렵이다. 불교의 포교를 위해 들어온 서적류와 더불어 종이 제작 기술이 전해졌다는 주장이다. 불교의 확산과 함께 대량의 불경 출간 사업으로 제지술이 발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의 종이

온라인 콘텐츠의 열풍이 불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종이는 인류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혀있다. 다만, 그 항목의 분류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라는 세 영역에서 사용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며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종이는 단순히 용지를 넘어 하나의 새로운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첨단소재로 거듭나고 있는 종이다. 그 용도도 다양하다. 절연 용지나 독특한 질감을 자랑하는 종이, 혹은 고급 염료를 입힌 고품질 종이 등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제지업계 역시 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종이 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쇄물의 재료라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 종이의 역할과 용도 범위를 확장하고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은 첨단 산업으로서의 도약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이토록 오래 쓰이고, 발전을 거듭하는 소재는 흔치 않다. 종이의 종말은 아진 먼 이야기다.

친환경 벌채, 종이의 미래를 쓰다

이처럼 종이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서, 고부가가치 소재이자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생활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종이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하지만, 제지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목재공급이 중요하다. 더구나, 목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론묘를 개발,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우수한 종자를 조직 배양하여 펄프 및 제지용 원료를 공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벌채를 도입,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공급에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산림청은 제지 산업의 영역을 새로이 넓혀가며 낙관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 한지

한국 고유의 방법으로 뜯은 종이, 한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한지는 닥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빛깔이 희고 예뻐 '백주지(百鈔紙)'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진상품으로도 쓰였으며, 중국에서조차 높이 평가할 만큼 그 명성 또한 자자해 문방청완의 취미를 기록한 「고반여사(考槃余事)」에는 “글자를 쓰면 먹물을 잘 빨아들여 종이에 대한 애착심이 솟구친다. 이런 종이는 중국에는 없는 우수한 것이다”라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천 년을 건디는 종이 한지, 그 제작과정을 한 번 알아볼까요.

한지 제작과정

1 닥나무 채취

겨울철인 11~2월 사이에 막 자란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깨끗하게 다듬은 후, 다발로 묶어 둡니다.



2 닥나무 껍질 벗기기

닥나무의 껍질을 벗겨 건조 시켜 길 껍질인 흑피를 남겨둡니다. 다음으로 흐르는 물에 10시간 가량을 담가불린 후, 껍질을 벗겨내어 백피를 채취합니다.



3 닥나무 껍질 삶기

메밀대, 콩대, 쥘 등을 태운 재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얀 백피를 잿물과 함께 푹 삶습니다.



4 껍질 씻기

삶은 백피를 2~3시간 정도 뜰을 들인 후 잿물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5 껍질 두드리기

모래 등의 잡티를 제거하고 40~60분 정도를 방망이로 두들깁니다.



6 닥풀 풀기

곤죽이 된 닥나무 섬유를 물에 넣고 저어 풀어주고 닥풀로 농도를 맞추어 줍니다.



7 한지 뜨기

영김이 풀린 닥섬유를 한지발을 이용해 건져냅니다.



8 한지 말리기

목판을 벽이나 지대에 기울여 놓은 다음 종이를 한 장씩 떼어내어 목판 위에 습지를 펴놓고 털 빗으로 쓸어 내려 말립니다.





수려한 맛을 넘어 입맛까지 사로잡다

황칠코리아 정현오 대표

황칠나무는 본래 도료로 쓰이던 수종이었다. 만년이 가는 황금빛이라 하여 신비의 도료라 불릴 정도로 빼어난 내구성을 자랑했다. 예로부터 왕실에 서는 가구는 물론 각종 칠기 제품과 같은 공예품에 황막을 입혀 기품 있는 맛을 더했다. 심지어, 진시황은 황칠나무를 일컬어 '불로초'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현오 대표는 황칠나무로부터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치장이 목적인 도료로써의 기능뿐만이 아닌 차와 향료, 신약과 같은 새로운 이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수려한 맛을 넘어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사로잡는 황칠코리아의 정현오 대표를 만나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김병구

●

황칠나무의 효능은

그 가치나 효능에 비해 연구가
덜 된 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음료 및 식품을 넘어 제약,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등,
활용 방안 역시 무궁무진하죠.

황칠나무의 또 다른 발견

황칠나무는 난대성 수종인지라 남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데, 그중 전국재배 면적의 약 90% 가량이 전라남도에 자리하고 있다. 왕실 도료로 쓰인 만큼, 이전부터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만큼 중한 대접을 받은 황칠을 다산 정약용은 '보물 중의 보물'이라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인데다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루 사랑받아온 황칠나무에 정현오 대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정현오 대표는 평소 차(茶)에 관심이 많았다. 즐겨 마시고, 또한 여러 종류의 차를 섭렵할 정도로 그 관심 또한 상당했다. 그러던 중, 정현오 대표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황칠차였다.

“황칠 특유의 그윽하고 깊은 향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특산작목인데다가, 효능도 좋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도료로서만 인식되었던 황칠나무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시 황칠 나무를 재배업으로 삼는 사람은 드물었다. 수령이 10년은 되어야 효험이 있어 나무를 기르고 상품화 시키는 데까지의 과정에



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었다. 남부 일대에서만 자라는 환경적 특성도 그렇고 무엇보다 한국 고유의 특산종임에도 불구하고 황칠나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았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던가. 정현오 대표는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황칠나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도리어, 이토록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여 미개척 분야를 공략한다면, 황칠나무는 뛰어난 상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황칠나무의 재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령이 되는 나무들을 직접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황칠 특산지로 유명한 완도의 보길도에 직접 가서 5년생을 두루 구매해와 이식했죠. 물론, 지금은 묘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의 효능은 예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 한국의 특산종이니 만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황칠나무의 특성과 더불어 다양한 활용 사례 등이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황칠나무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는 무척 낮은 편이었다. 정현오 대표는 황칠나무의 대중화를 위해

- 황칠나무는 다방면으로 무척 유용한 나무입니다. 도료로서 쓰일 뿐만 아니라 섭취 시 그 효능 또한 아주 우수하죠.

01 추출된 황칠나무의 진액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02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03 정현오 대표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황칠나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01



02



03

식용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도료로서만 사용된다는 편견을 없애고 직접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황칠음료였다.

“황칠나무는 다방면으로 무척 유용한 나무입니다. 도료로서의 쓰일 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고, 생리 기능을 진정시키며 간의 해독과 숙취, 피로해소 등 섭취 시 그 효능 또한 아주 우수하죠. 구수하고 깊은 맛은 또 어떻구요. 황칠음료는 그러한 황칠나무의 뛰어난 효명과 맛을 전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오 대표는 봄철 새순을 고르고 순과 줄기, 가지 등을 건조시킨 후 발효과정을 거쳐 차를 생산했다. 그렇게 제품으로 탄생된 황칠음료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단골 고객 및 유치 업체도 제법 생겨났다. 하지만, 정현오 대표는 그에 만족할 수 없었다. 좀 더 과감한 투자와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해 시장 공략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탁월한 효능을 앞세워 황칠나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객층을 노릴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제품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황칠나무의 생육조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갔다.

“황칠나무의 효능은 그 가치나 효능에 비해 연구가 덜 된 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음료 및 식품을 넘어 제약,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등 활용 방안 역시 무궁무진하죠.” 황칠나무에 대한 열정으로, 정현오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품을

구상하고, 철저한 제품 관리와 품질 개선에 힘썼다. 황칠 나무의 효능은 수령이 높을수록 그 빛을 발하는데, 정현오 대표가 관리하는 황칠 나무는 거의 20년생에 다다른다. 10년생을 기준으로 그 효능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도 배가 되는 것이다. 그 시간은 황칠나무의 효능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정현오 대표가 쉽 없이 달려온 노력의 세월이기도 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황칠나무 제품 개발에 몰두, 지금은 황칠한, 비누, 건강식품 등 갖가지 상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정현오 대표가 운영하는 황칠나무농원 역시 그 규모가 30만평에 다다른다. 전국 최대의 황칠나무재배단지다. 그 경관 또한 훌륭하다. 잎도 넓어 시원하니 미관도 좋고, 빼곡하게 들어선 황칠나무가 뿜어내는 안식향은 두통 해소와 더불어 몸에 쌓인 피로를 덜어주어 휴양가치로도 손색이 없다. “도심 생활에 지친 분들이 이곳에 한 번쯤 들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칠나무 숲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유 있게 차 한 잔도 즐기면서 피로를 풀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고유 특산종인 황칠나무로 조성된 휴양림을 개발하여 지역 고유의 생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잡아 그 가치가 오래 전해질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정현오 대표는 조성한 황칠나무농원을 재단장하여 새로운 체험 학습 및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획을 구상중이다. 멋과 맛을 넘어 황칠나무가 일상의 휴식처로서 삶의 위안이 되길 바라는 정현오 대표. 지금과 같은 황칠나무에 대한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결실도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긋한 봄내음
가득 한상

취나물과 들깨



봄철 초록 잎들이 고개를 서서히 내민다. 한 겨울 언 땅이 녹으며 다시 생명이 돌고 그렇게 생기가 돈다. 비로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봄철이 가까워지며 입맛을 돋워 줄 새롭고 산뜻한 음식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그럴 땐,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가득한 향긋한 봄내음이 제격이다. 이번 호에서는 봄냄새 가득 담긴 취나물과 구수한 들깨로 차린 한상을 준비해보았다.

글/진행 매거진 송 편집실 사진 김경구

봄이 되니 파릇파릇한 나물이 간절히 먹고 싶어진다. 봄별을 가득 맛
고 지란 취나물은 봄맛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식재료다. 제철 맞은
취나물은 맛이 각별히 향긋하고, 우리가 흔히 흙내라고 부르는 땅 넘
새가 물씬 배어있다. 취나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풀인 취 중에서 식용
가능한 종류로 보통 살짝 데쳐내어 쓴맛을 죽인 후, 양념에 버무리거
나 소금이나 참기름에 무쳐 먹는 것이 기본이다. 전국의 산에서 자생
하는 산채로 맛과 향이 뛰어나 봄에 뜯어 씹으로도 잎아들 먹으나, 그
중 강원도와 충북, 전남 일대에서 즐겨 먹는다. 보통 자연산을 채취해
먹거나 재배하여 섭취하기도 한다. 자연산의 경우는 3월 즈음 시작해,
5월까지 제철로 이 시기에는 야생에서 자란 취나물을 맛볼 수 있다. 제
철에 수확해 밀려 두었다가 철이 지난 후에도 먹기도 한다.
참나물은 특유의 향과 씹새롭힌 맛이 특징이다. 국내에 자생하는 종은
대략 60여 종에 달한다. 그중 취나물을 비롯, 공취, 개미취, 미역취 등
24종이 식용으로 활용되며 연중 수확량이 제일 많은 종은 참취다. 참
취의 경우는 재배 면적이 산채 중 4번째에 들 정도로 소비량이 크다.

취나물은 칼슘, 철분,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며 비타민 A는 동량의 배
추보다 10배를 더 함유하고 있다. 칼륨 또한 많아 체내에 축적된 유해
한 염분배출에 탁월하고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성분이 항산화 기능을
하여 노화방지에도 효능을 보인다.
본격적인 취나물 철이 시작되는 만큼, 신선한 취나물을 고르기 위해선
잎이 밝은 연녹색이며 시든 부분이 없어야 하고, 뒷면에 윤기가 흐르면
서 잎의 전반적인 태가 고르게 펼쳐 있는 걸 고르는 게 좋다. 혹은 한
입 맛보았을 때, 특유의 향이 진하게 퍼진다면 제철 맛이 제대로 든 것
이다. 삶은 것을 고를 때에는 줄기의 변색에 신경 써야 하고 만져보았
을 때 지나치게 질물렀다면 피해야 한다.
취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들깨다. 칼륨 함유가 높은 취나물
에 단백질과 지방이 첨가된 들깨를 곁들여 요리할 시 영양학적인 균
형을 맞출 수 있으며, 구수한 맛을 더해 밥상에 향긋함을 더한다. 열량
도 낮은 편이라 몸에 부담도 없다.

Recipe 1

취나물 들깨 수제비

재료

수제비 반죽 재료

- 밀가루(중력분) 200g
- 취나물 삶은 것 50g
- 물 90ml
- 소금 약간

육수

- 멸치&다시마 우린 물 600ml
- 국간장 2작은술
- 소금 1/2작은술
- 마늘 1쪽

취나물 고명

- 취나물 삶은 것 100g
- 마늘 1쪽
- 들기름 약간
- 국간장 1작은술

레시피

- 1 취나물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2분 데친 후, 체에 밭쳐 찬물로 씻고 물기를 꼭 짜준다.
- 2 밀가루에 취나물을 다져 넣고 물을 넣어 함께 반죽한다. 반죽은 20분 간 상온에서 숙성시킨다.
- 3 고명으로 올릴 취나물은 망망에 무쳐 놓는다.
- 4 물 600ml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우리다가 국간장과 소금, 마늘로 간을 하여 충분히 끓인다.
- 5 ④에 먹기 좋게 적당량으로 반죽을 떼어 수제비를 넣는다.
- 6 수제비가 끓는 육수에 떠오르면 그릇에 담고 취나물 고명과 들깨가루를 곁들인다.

Recipe 2

취나물 들깨 타코

재료

- 토피야 15cm 4장
- 쫄면 1작은술
- 참나물 1작은술
- 상추 1작은술
- 치즈 1작은술
- 플레인 요거트 150g
- 취나물 삶은 것 100g

타코 속재료

- 소고기 삶은 것 200g
- 올리브 오일 1큰술
- 마늘 다진 것 1작은술

타코 속재료 양념

- 케첩 1큰술
- 고춧가루 1작은술
- 커민 파우더 약간
- 소금 1/2작은술
- 간장 1작은술

살사소스

- 토마토 1개
- 셀러리 반 줄기
- 양파 약간
- 레몬 반개

레시피

- 1 토피야는 팬에 구워 따뜻하게 데운다.
- 2 타코 속 재료에 들어가는 아저는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3 취나물을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데친 후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4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든다.
- 5 팬에 오일을 넣고 마늘은 볶은 후 향이 올라오면 소고기를 추가하여 볶는다.
- 6 ⑤의 과정에서 소고기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양념을 넣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마저 볶는다.
- 7 살사 소스의 재료를 다진 후, 레몬즙과 소금간을 하여 섞는다.
- 8 데워진 토피야에 속 재료와 살사소스를 넣고 들깨 플레인 요거트와 치즈를 첨가하여 싸서 먹는다.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를 한 번에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는 에코플랜트 중 키우기가 비교적 쉬운 식물로 관리가 쉽고 병해충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수경재배가 가능해 줄기 끝을 잘라 물꽂이에 삽목하여 간편하게 기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수한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으로 주방에 놓을 시 그 효과가 탁월하다. 더구나, 품종에 따른 색상도 갖가지여서 대중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그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까지 한 스킨답서스 식물을 기르기가 선뜻 망설여지거나 자신감이 없는 초보자라면, 이번 기회에 스킨답서스를 길러보는 건 어떨까.

글 배기진 총 편집장

- ☞ 번식 삽목
- ☞ 물주기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관수
- ☞ 학명 Epipremnum aureum
- ☞ 꽃말 우아한 사랑
- ☞ 크기 높이 20m
- ☞ 과명 담쟁이과



스킨답서스는 낮은 광도에서도 잘 자란다. 병해충에 대한 면역력도 강하며 실내 어디에 두어도 성장에 큰 무리가 없다. 초보 가드너에게 이보다 안심맞춤인 식물이 어디 있을까.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반려식물 겸 실내 디자인을 위한 소품으로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잎도 크고, 더불어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해 한껏 줄기를 뻗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다. 이번 기회에 스킨답서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키움으로써 공기 정화는 물론 실내 분위기를 한껏 화사하게 연출해보자.

실내 식물을 기르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물주기다.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물을 주어야 하는지 혹은 계절 및 장소별 물의 양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식물을 기르는 조건 역시 가구마다 미세한 오차가 있으므로 그 기준도 모호하다. 하지만 스킨답서스는 비교적 단순하다. 토양 표면이 말랐을 경우 흙색 젖은 정도로 물을 주면 된다. 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파내어 수분기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좋다. 혹은 물을 너무 많이 줄 경우는 잎 가장자리가 물러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습 시에는 흙을 꺼내어 말리거나,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여 건조시킨다.

일반적으로 별이 잘 드는 거실 창가에 두는 것이 좋겠으나 아외 혹은 그늘진 장소에서 두어 길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날이 제법 선선한 봄이나 가을에는 아외에 두고 길러도 될 정도. 그러나 너무 강한 광도의 직사광선은 생장에 방해가 되므로 어느 정도 차광에 신경 써 주는 것이 풍성한 잎 번식에 도움이 된다.

흙의 성분에 따라서도 식물들은 생육에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듯, 식물도 토양이 머금은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양분을 빨아들인다. 스킨답서스 역시 토양의 조건에 따라 생육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충족 요건은 물빠짐이 수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수가 좋지 않으면 뿌리가 호흡할 수 없어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 비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원효성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수경 재배시 물은 항상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므로, 3일에 한 번 물로 갈아주어야 무난하며 최대 일주일 이상은 넘지 않도록 신경 쓴다.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지켜주기만 하면 충분하다. 단, 스킨답서스에 있는 칼슘옥살레이트 성분이 애완동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내관엽 식물 중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우수해 주방의 기능성 식물로 좋으므로, 주방 창가 혹은 선반 위에 올려두어 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한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일리는 봄철, 스킨답서스를 들어 주방 속 공기 정화와 더불어 실내 분위기를 더욱 다채롭게 꾸며보자. ☺





내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각양각색 산촌

정확히 산촌이란 무엇일까. 법규(시행령 제2조, '산촌')에 따르면, 첫 번째는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인 것, 두 번째로는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06명/㎢)이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19.7%)이어 한다고 정의한다. 그에 따른 현재 전국 읍·면의 산촌 수는 무려 466곳에 달한다. 국토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산촌의 비율 또한 상당하다.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산촌 중에 내게 꼭 맞는 산촌을 고르기란 쉽지 않다. 이번 '산촌에 머물다'에서는 산촌 지원 사업 및 각양각색의 산촌 중 내게 적합한 귀산촌 공간을 알아본다.

건강한 산촌을 만들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

먼저, 산촌을 고르기에 앞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촌 진흥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 산림청에서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섯 가지의 주제로 산촌이 지닌 매력과 가치 특화에 앞장서고 있다. 「제2차 산촌진흥 기본계획(’18~’27)」에서는 각 세부 항목에 따라 분류하며 진원·육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몇 가지 분야를 확인해보자면, 생태 부분에서는 '특색 있는 마을 경관 조성'과 '산림생태계 보호, 관리에 주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지역 특화림 조성 범위를 870ha에서 9000ha까지 늘리고, 더불어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산림생태계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산촌주민이 산촌 보호의 주체가 되는 건강한 산촌을 만들어갈 전망임을 드러냈다.

산촌이라 하여도 다 똑같지 않다. 사람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 산촌 역시 각기 다른 환경적 요건에 따라 마을의 문화와 특성도 천차만별. 산촌의 정의를 살펴보고, 각지의 우수산촌생태 마을을 비교 분석해 내게 적합한 산촌을 골라본다. 더불어, 산촌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산촌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풍요 산촌 항목에서는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학·연이 공동 참여한 임업·산촌 클러스터를 통해 고소득 임산물 상품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끝으로, 행복 산촌의 경우 산촌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와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산촌의 복지향상에 힘을 쓸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다방면으로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산촌진흥 계획을 참고하고, 이어 산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 단위의 지원 사업을 확인해 귀산촌 계획을 수립한다면 한결 순조로운 산촌 정착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내게 꼭 맞는 산촌 리스트

마을의 여건, 현황, 지원정책, 지역의 기후에 따라 산촌의 유형은 천차만별이다. 내게 적합한 산촌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지역별 산촌의 분포도와 산촌의 특성을 파악해야만 한다. 산림청에서는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및 생활 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하는 우수산촌생태마을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현재까지 소개된 우수산촌생태마을은 대략 105곳으로 주거지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뛰어나 휴양과 자연 학습의 장으로 힐링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다방면으로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각 마을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산물, 약도, 먹거리, 주변 경관,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등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내 물에 꼭 맞는 옷처럼, 자신의 생활 방식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산촌 리스트를 한번 꾸려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산촌자원정책도 확인하고 내게 맞는 산촌 리스트도 짜놓았다면, 마지막으로 현장 탐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자체 및 국가 행정의 지원과 같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명료한 경험도 필요하다.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호하게 남아있던 산촌 정책의 실체에 확신을 갖고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산촌 탐방 프로그램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산촌에 방문해 귀산촌 준비자 간의 교류와 더불어 현지 거주자와의 재배 및 생활 체험을 갖는 단기 체험, 일주일간 산촌에 거주하며 임가 입손을 돕고 협업을 통한 마을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문화를 몸소 느껴보는 장기 밀착 체험, 끝으로 소득 작물에 관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교육과 함께 직접 계획 수립 해보는 산촌 창업 견학 체험이다. 각 체험이 진행되는 장소는 전국 우수산촌생태마을에서 시행되며 마을별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에 차이가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산촌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안락한 산림 생활을 이어가자.



각양각색 산촌 마을 리스트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 재배 작물, 생활 방식에 저마다의 차이를 보인다. 전국 각지의 살기 좋은 산촌을 몇 곳 뽑아 정리해보았으니 귀산촌 수렵에 참고해보도록 하자.

고송리 산촌생태마을 경기도 양평



양평군의 학단 북쪽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악지역으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덕분에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된 아름다운 농촌마을입니다.

특산물 부추, 오디

보랏빛산채마을 강원도 인제



천년 신라 경순왕의 아들인 마의태자가 고려에 체행하여 신라 재건을 꿈꾸었던 발자취가 유 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특산물 오이차, 폐주, 잡곡, 산나물 등

궁터 산촌생태마을 경북 문경



궁터산촌생태마을은 문경시의 서남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우리가 보이는 청정지역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산물 오이차, 산나물, 두부

하조 마을 전남 광안



광안 하조마을은 호남정맥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으면서 백운산 형제봉 아래 성불계곡과 반월계곡을 품에 안은 마을입니다.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형상이 새의 부리를 닮아 '하조마을'로 불렸습니다.

특산물 양, 표고버섯, 두부

두메마을 충북 보은



친화적 에너지인 천연에너지의 활용은 이 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을 접목해 요리 등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청정한 오염 없는 자연을 자랑해 하늘이 맑아 별자리 관측 명소로 불립니다.

특산물 황토, 대추, 유정란



붉게 수놓인
한 떨기의 꽃

백련사 동백나무숲



동백나무는 겨우내 꽃을 틔우고 본격적인 봄철이 시작되면 서서히 그 꽃을 내려놓는다.

경칩 즈음 봄을 맞으려 고개를 드는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흰 설경 사이에 피어나
봄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적이 드문 겨울동안 기다리다
봄이 되어서야 겨우 그 얼굴을 잠시 마주칠 수 있다. 그래서 동백은 애뜻하고 절절하다.
동백꽃의 꽃말처럼 다 지나간 뒤 깨닫는 진실한 사랑 같다.

글 권용민 사진 김병구



숲길을 붉게 물들이다, 동백나무숲

백련사에 이르는 길마다 붉은 한 떨기의 꽃이 내려앉아 있다. 한적하게 걸음을 옮기는데, 길 곳곳마다 붉은 동백꽃이 눈에 잡힌다. 동백꽃은 지는 모습 또한 다른 어느 꽃과는 달리 송이 째 떨어져 수려하다. 이르게 피어 먼저 지는 만큼, 제 모습을 고이 간직한 채 저물며 얼굴을 비추는 것만 같다. 백련사 동백나무숲을 찾은 3월, 동백은 지고 피기를 반복하며 사방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동백꽃이 눈가에 가득 들어왔다. 잠깐의 봄을 한껏 만끽하려는 듯 도처에 자신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동백꽃은 겨울부터 피기 시작해 4월이 지날 시점이면 하나 둘 지기 시작한다. 매서운 겨울을 견디느라 힘을 다 소진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 까닭에 매화는 예로부터 충절의 상징으로도 쓰였다. 겨울의 추위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꽃을 틔우고, 저물면서는 온전한 형태로 장엄하게 툇 떨어지는 것이 마치 충신의 모습과도 닮아 그렇게 불렸다. 그 말처럼, 동백꽃은 밝히거나 시들어 색이 바랠지언정 본래의 형태를 흐트러짐 없이 유지하고 있었다.

초입을 지나 본격적인 동백숲길에 들어서니, 벌써부터 이른 봄을 맞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싱싱한 초록 앞에 살포시 얹힌 동백꽃,



- 01 백련사 동백나무숲은 이른 봄을 맞고 있었다.
02 이르는 길마다 붉은 동백이 내려 앉아있다.
03 만경루에 올라서면 만덕산의 경치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적당한 바람과 따스한 별이 정말 영락없는 봄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게 한반도의 발끝 강진에서 봄은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동백꽃은 그런 봄이 가는 길을 붉게 터주고 있는 듯 했다.

강진 백련사에 자리한 동백나무는 대략 1,500여 그루나 된다고 한다. 백련사를 기점으로 남쪽과 서쪽 구간에 걸쳐 5만㎡에 달하는 면적에 동백나무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백꽃은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柏), 추백(秋柏), 동백(冬柏)으로 나뉘는데, 백련사 동백꽃은 겨울 즈음 맺혀 이름 봄까지도 피고 지기를 반복해 춘백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어우러진 백련사, 다산 초당 등과 같은 문화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길을 따라 홀린 듯이 걷다 보니, 어느덧 백련사의 치마가 살짝 보인다. 길이 워낙 단조로워 힘이 들지 않은 덕도 있겠으나, 오래 보아도 물리지 않을 만큼 동백나무와 동백꽃의 미려한 자태가 피로를 덜어 준 것이겠다.

동백나무숲에 오롯이 안겨있는 백련사

동백나무숲을 허정허정 걷다보면, 금세 백련사에 다다른다. 만덕산에 있어 만덕사라고도 일컬어지는 백련사는 통일신라 말기인 839년,

무염스님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후에 여러 별칭으로 불리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백련사로 고쳐 부르고 있다. 한 때는 폐사될 지경으로 내몰려 겨우 명맥만을 유지한 적도 있었으나, 1426년 주지 행호스님의 대대적인 중수 작업 덕분에 다행히도 그 본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년 고찰, 백련사는 수많은 역사의 세월을 견디면서도 동백나무숲에 안겨 늘 존재해왔다.

둘레길을 오르고 나면 백련사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어, 쪽 걸음을 잇다보면 대웅보전에 도착하는데, 계단 끝에서 느림한 자태로 사람들을 굽어보는 모습이 사뭇 장엄하게 느껴진다. 그 주 위로는 명보전과 웅진전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웅보전 맞은편에는 만경루가 만덕산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다.

만경루에 신을 벗고 들어서 한껏 바람을 쐈다. 동백나무숲을 쓸어내리며 불어오는 만덕산의 바람은 부드럽고 안온했으며, 마음 한 구석에 얹힌 근심을 덜어줄 만큼 푸근했다. 한 발짝 가까이 창가로 다가서자 만덕산의 풍채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쉬이 걸음을 땔 수 없었다. 지나온 길가에 피어있던 붉은 동백꽃이 드문드문 숲 사이마다 별처럼 수를 놓고 있어서였다. 영락없는 봄철이었다.

백련사에 내려와 남은 숲길을 마저 둘러보았다. 숨바꼭질하듯 부도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부도란 스님들이 열반에 들고 다비식을 해 나 온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다. 이곳 동백숲 부근에 위치한 부도는 유형



문화재 제233 호인 강진백련사원구형부도도(康津白蓮寺圓球形浮屠)와 대웅보전을 중수하신 월인당 총신 스님의 부도가 있다. 곳곳에 흩어진 부도를 둘러 보다 숲 한 자락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차밭이 보였다. 백련사 내부에 다방이 있는 걸 보건데, 아무래도 사찰의 스님들이 일구는 발인 모양이었다.

소박하되 기품 있는 다산초당

한적하게 백련사도 둘러보았겠다, 다산초당을 들르는 것도 좋을 듯싶었다.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 큰 무리도 없을 것 같았고, 만덕산 구석구석을 더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굽이진 오솔길을 걷는데, 이정표 하나가 반듯하게 서 있다. 조그만 빗겨 지나면 해월루가 있다. 시간도 있고, 바람도 선선하니 몸도 가벼워 발길을 돌렸다. 해월루는 만덕산을 등지고 강진만을 향해 몸을 돌리고 서 있다. 정자에 올라서 해월루의 시선을 따라 주변 풍경을 훑어보았다. 곧게 뻗은 강진만의 물줄기와 진한 초록빛의 들판과 하늘이 서로의 경계를 맞대고 어우러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만덕산의 무성한 초록과 강진만의 물줄기가 동시에 흔들렸다. 한동안, 그 광경을 감상했다. 몸에 차츰 기운이 차오르고, 풍경이 눈에 익을 즈음에서야 다시 다산초당으로 향했다.

다산초당에 이르는 길, 나무뿌리가 얽혀 오솔길에 기이한 무늬를 그려 놓고 있었다. 지상에 다 드러난 뿌리엔 오랜 시간 생의 의지를 다져온 힘이 서려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일까, 발에 닿는 단단한 뿌리의

촉감이 어찌지 고된 세월의 질감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삶의 흔적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다.

해월루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산초당에 이르렀다. 동백나무에 묻힌 다산초당은 사뭇 청초하고 기품 있게 보이기까지 했다. 조선 후기 강진으로 유배 온 정약용 선생은 이곳에 11년간 머무르며 <목민심서>를 비롯 약 500여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에 사람의 평소 행실이 드러나듯, 다산초당에서 새어나오는 기품은 학자로서의 곧은 심성과 태도가 배인 것인지도 모른다. 작고 소박하되 추레하지 않고, 다소곳하면서도 담대하다. 한 사람의 생애와 그가 이룬 결실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경건해진다.

다산초당 옆에는 작은 인공 연못이 마련되어 있다. 정약용 선생이 땅을 판 후 돌을 쌓아 만든 연못이라 한다. 나뭇등걸에 흙을 파 연결하여 물을 끌어와 연못을 채웠다. 그러곤 연못의 중앙부에 산처럼 돌을 쌓아 ‘연지석가산’이란 이름을 붙이고, 비단 잉어 두 어 마리를 풀어 기르면서 적절한 유배생활동안 심신을 달랬다. 이 외에도, 밭을 일구고 집을 단장하는 등 한 치의 게으름 없는 올바른 생활을 이어갔다. 보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를 그 누구보다 엄격히 대하고자 했던 정약용 선생의 노력이 다산초당 곳곳에 서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백련사를 시작으로 해월루 다산초당에 이르기까지, 한데 얹힌 역사와 문화가 만덕산의 동백나무숲을 배경으로 어우러져 귀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

●
백련사를 시작으로
해월루 다산초당에 이르기까지

한데 얹힌 역사와 문화가
만덕산의 동백나무숲을
배경으로 어우러져 귀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04 해월루 앞으로 곧게 뻗은 농지와
강진만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05 다산초당의 기품은 학자로서의
곧은 심성과 태도가 남아 있었다.

간편하게 즐기는 도심 속 식물 안내서 하루 5분의 초록

집 근처, 출퇴근길이나 아파트 화단... 도심 속에서도 시선을 조금만 돌려 보면 이토록 많은 나무와 마주칠 수 있다. 우리가 도시의 속도를 쫓느라 이제껏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다. 도심 속에서도 숨겨진 초록이 이토록 무성하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을 한다면 우리가 잊고 있던 귀중한 '생명'의 비밀을 다시금 깨우칠 수도 있을 것이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저자 박상진
일러스트 식물화가 한수정



● 하루 5분,
걸음을 멈추고 초록이 주는
조용한 휴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를 전해 받을 수 있다.



01 저자는 직접 그린 삽화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적어놓았다.

02 내지에 삽입된 삽화는 저자가 직접 관찰하여 그린 작품이다.

하루 5분, 간편하게 즐기는 숲

국토 면적의 약 70%가량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네 어딜 가나 산 하나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산에 가뿐히 오를 수도 있고, 도시의 경치를 한껏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 이토록 많은 초록이 사방에 무성해 있음에도, 바쁜 직장인들에게 시간은 금이자 귀한 자산이다. 그렇게 자연을 감상하는 일은 점차 소모적인 일로 취급받는다. 그렇게 일상에서 초록은 멀어지고 잊혀진다. 점차 삶이 메마른다.

하루 5분의 초록은 그런 도시민들을 위한 간편한 도시나무 안내서다.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기 힘든 직장인들 위한 아채 음료처럼, 나무 또한 하루 5분의 작은 시간을 통해 쉽게 즐기도록 도와준다. 하루 5분, 걸음을 멈추고 초록이 주는 조용한 휴식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로를 전해 받을 수 있다.

저자인 한수정 작가는 미술 대학 졸업 후, 조경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러 시골의 식물 농장에 내려와 일을 하다 식물에 관심이 생겼다. 조경에 쓰이는 작은 초화류를 재배하는 곳이었는데,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식물을 돌봤다. 아버지도 그녀의 정성을 아는지, 매일 농장을 둘러보며 식물의 이름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 제안한다. 그렇게 하나 둘, 식물의 이름을 외워갈 무렵, 그녀는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다들 비슷한 색감과 모양을 가진 식물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서로 다른 색과 질감, 모양을 지닌 고유한 생물로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즈음부터 그녀는 일상의 모든 나무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듯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꼈지만, 실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분명 자연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 자연은 우리의 무관심과는 상관없이 도시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계절을 품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 그들을 바라볼 새가 없었던 것뿐이다. 그녀는 단순히 감상이 아닌 관찰을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변화를 지켜봄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세상을 아주 조금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한다. '관찰'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해 과정이다. 대상을 새로이 사랑하는 일이다.

도시에서 나무를 만나는 특별한 방법

한수정 작가는 '도시에서 사는 나무'들을 주제로 차근차근 소개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식물 가이드라고 봐도 좋다. 도시에 살기 적합한 나무는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선 공해에 강해야 하고, 가로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외형이 수려하고 녹음이 짙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때문에, 나무 하나를 잘 사귀어두면 어딜 가든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도시 나무를 관찰하고, 사귀는 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한다. 보통은 '저기 저런 나무가 있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을 구석구석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교감은 어떠한 방법

으로 나누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사람을 사귀듯, 나무 또한 마찬가지다.

저자는 나무를 사귀는 방법을 16단계에 걸쳐 알려준다. 산책길을 따라 걷는 법, 10초 동안 멈추고 눈을 맞대보는 일이나 렌즈로 바라보는 법이나 나뭇잎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열매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자연에서 들리는 한 줄의 소리까지 듣는 등 진솔한 친구를 사귀듯 섬세하게 다가가고 이해하고자 노력해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연이 단순히 삶의 배경이 아닌 삶의 든든한 친구처럼 인식하고, 몸소 소통하는 방법을 기르도록 한다.

사귀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직접 만나볼 시간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도심에서 자주 마주치는 나무를 상세하게 소개해놓았다. 얼굴은 알되, 말을 섞지 않는 막연한 사이처럼 책장을 넘기다보면 '아, 어디서 보았는데' 하는 순간들이 종종 다가온다. 저자는 어디서 마주치고, 또 볼 수 있는지, 특성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독자와 자연간의 어색한 경계를 허문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다보면, 주변에 이토록 많은 나무가 여러 얼굴로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때론 오랜 고향 친구를 만난 듯, 반갑기도 하다. 🌳

숲의 미래를 위해
날아오르다

산림항공본부



02



03

봄이 오면 조용했던 산이 활기를 찾는다. 움츠려있던 나무와 땅이 다시 온기를 머금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산악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산림항공본부는 응급 구조장비를 갖춘 대형헬기와 응급구조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항시 대기 중이다. 더불어, 국가재난시에도 다양하고 신속하게 임무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 및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지각색 사건·사고와 재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림의 지킴이, 산림항공본부의 노력을 자세히 파헤쳐 본다.

글 권용민

봄철 산불 대비, 출동 준비 이상 무

건조한 봄철, 어느 때보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항공본부도 분주하다.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불 예방 감시 활동과 더불어 초기 대응 체계 점검 및 진화 훈련, 항공기 정비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항공본 부를 기반으로 전국에 총 12개의 산림항공 관리소를 운영하며, 각 관 리소마다 비행 권역을 나누어 즉각적인 대처와 임무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물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안 전 점검을 통한 헬기의 안전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 림항공본부에서는 부속교환, 계절점검, 특별점검과 같은 성능 정비를 연간 평균 3,800회에 이를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유지하고 있으며 산불 재난을 대비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단계별로 운영하여 방 화선 구축과 개인 안전확보를 위한 방염 텐트 훈련으로 국민들의 휴 식처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항공의 안전과 함께 산림과 국민 보호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한 준비

산불진압 뿐 아니라 산림항공본부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사 고와 실종·조난 및 자체온증 산악인명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매번 인명구 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승무원과 항공구조대원들은 항공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실종자구조 탐색, 헬기 착륙이 어려운 지역에서 응급환 자 발생시 호이스트를 이용한 공중 구조 등 사건·시례를 종합한 실 질적인 대처능력을 기르는 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봄철 숲이

01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02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진화훈련을 하고 있는 초대형 헬기

03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산림항공본부 전경

01

가지개를 컸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만큼, 그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와 신속한 응급처리를 통한 안전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 재난재해 복구 현장 주저 없이 날아가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며 산림항공본부는 방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돼지열병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항공본부이지만 산악구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및 진화 이외에 국가 재해 발생 시 주저없이 도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동이나 야생멧돼지의 이동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경로가 다양하게 예측되는 만큼 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헬기로 항공방역을 실시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실료를 주말 비상대기 중이던 대형헬기를 출동시켜 긴급이송 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등산로 자재 운반

정상에 오르기까지 잘 정비된 계단 울타리 안내표지판 잘 지어진 전망대. 이 시설물들이 어떻게 운반이 되었는지 한번쯤 궁금했을 것이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산악지대에 이 무거운 물건들이 어떻게 운반이 되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항공에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사업에 따른 공익목적의 헬기지원요청을 받아들여 화물운반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운반계획,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가용범위 안에서 헬기를 지원한다. 화물을 인양하여 이동시 임무에 앞서 화물포장 및 결속상태와 인양 및 하역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행경로에 대한 안정저해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산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돕고, 노후화된 안전시설을 교체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멸종위기 식물 자생지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위한 자재 운반 등 각종 산림사업 지원에 안전비행을 우선으로 산림의 안전을 수호한다.

이처럼,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신속한 구조, 산불 진화,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이 소중한 노력들을 통해 모두가 편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산림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산림의 미래를 위해 산림항공본부는 힘껏 날아오고 있다. 

04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제 항공기를 활용한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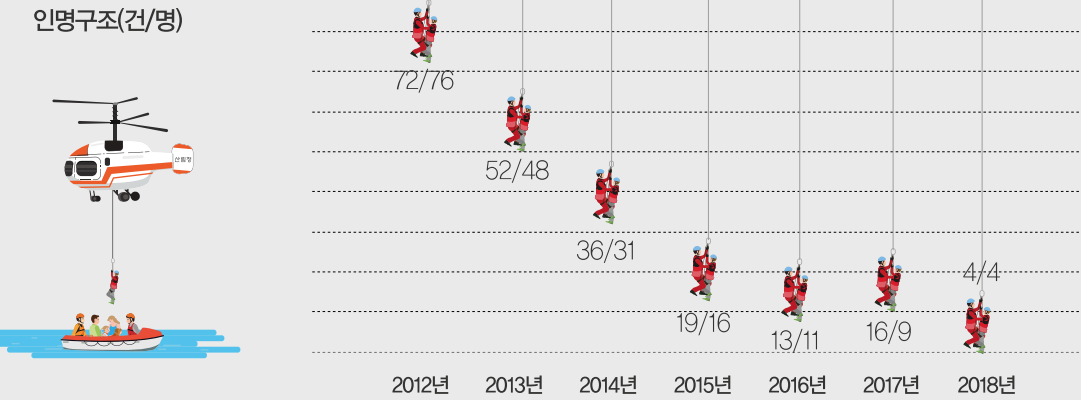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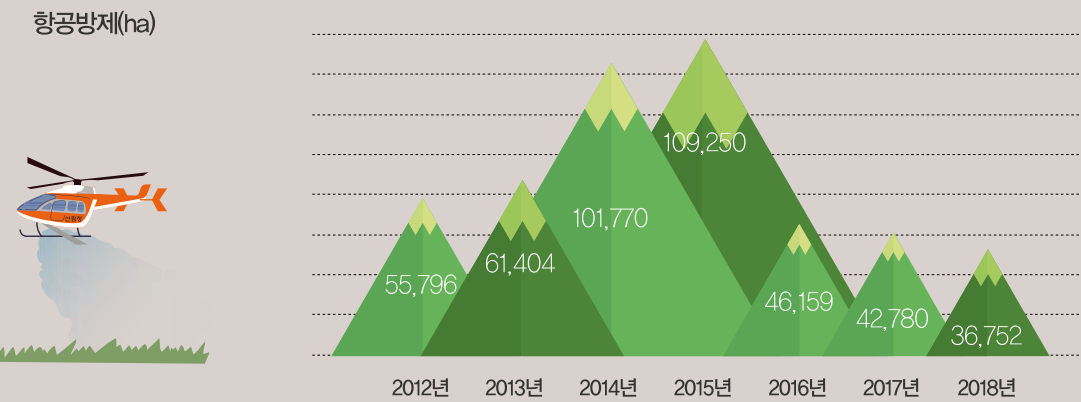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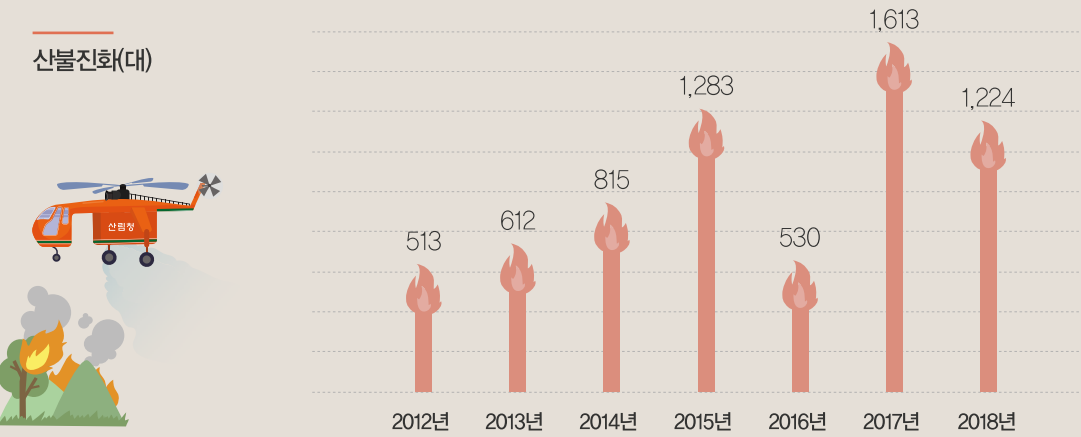
05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공익 목적을 위한 운반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산림항공본부의 노력

재해로부터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산림항공본부.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 안전체계 확립을 통하여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숲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한 산림항공본부의 노력을 알아보자.

| 헬기투입 실적 |



산림청 소식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은 3월 3일 ‘코로나19 대응 산림분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산림청장이 주재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간부들과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산림분야 예방대응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산림대책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할 것을 전하면서 비상 상황이지만 임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당부하였다.



더 넓고, 신속·정확한 스마트임업 실현 위한 산림위성 개발

산림청은 산림공간에 대한 더 넓고 신속 정확한 스마트임업 실현을 위해 ‘산림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농림위성 개발에 따른 연차별 세부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기존 산림관리 방식을 사람 중심에서 원격탐사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스마트임업 실현이 달성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걱정없이 내 나무 갖는 이색 나무심기에 참여하세요!

코로나19로 침체된 묘목 시장을 활성화하고, 나무를 심는 국민 참여와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현장에서 묘목을 나누어 주던 ‘내나무 갖기 한마당’ 행사를 묘목을 구매할 수 있는 교환권인 「그루콘」을 발송하여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사업 P4G 올해의 사업으로 결정

산림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PFI(Peace Forest Initiative,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시범 사업이 올해의 스타트 업 사업으로 3월 10일(현지 시각) P4G 사무국에 의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에티오피아에서 시행되는 산림복원 및 커피 혼농 임업 모델은 다른 P4G 회원국들에게도 실질적인 시사점이 될 것이다”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활동이 기후변화, 녹색성장, 평화 증진 등의 사회적 공헌과 의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최첨단‘산림 드론’ 띄워 대형 산불방지 총력 대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 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고락삼 과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대형 산불 기간 동안 대규모 산불예방 주말 기동단속이 어려운 만큼 첨단 산림드론을 이용해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라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산지관리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산지관리 분야 제도 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국민들이 산지를 이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산불 진행 상황 유튜브로 실시간 확인

산림청은 3월 20일 앞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산불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산림청 이용석 대변인은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보다 빨리 대처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며, 국민께서도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라 꽃 무궁화 만발한 아름다운 학교 함께 만들어요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382개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5,424본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묘목 무상공급은 2014년 산림청과 교육부간 ‘나라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벤트 오직 SNS에서만!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가 찾아 갑니다

산림청은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SNS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이벤트는 4월 1일부터 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하며, 영상을 시청 후 ‘나에게 식목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한 줄 댓글 또는 #해시태그를 달아 참여하게 된다. 이용석 대변인은 “한그루 나무가 주는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산림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산림청 ‘365 국민평가멘토단’ 모집

산림청은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혁신 국민 제감도를 높이기 위해 ‘365 국민평가 멘토단’을 모집한다. 이는 기존의 국민 멘토단을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멘토단은 각종 산림정책 제안부터 집행, 평가 등 정책 전반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분야 및 권역별 운영을 통해 산림청 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멘토단의 참여가 확대된다. ‘365 국민평가 멘토단’ 모집(4월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면 된다.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20 1+2월호 독자 의견



최준혁 (대구시 수성구)

‘숲이 흐르다’에서 산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친환경 벌채가 너무 좋았습니다.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것으로 마치 사람이 살기 위해 소통이 필요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진(경기도 시흥시)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보고 고사리를 곁들인 베이컨 간장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 고사리를 꺼리던 남편도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요. 다음엔 고사리 돼지고기 볶음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영철 (서울시 중구)

몇 년 전 여름휴가 때 강원도 인제 공배령으로 일정을 잡아서 여행을 하여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면을 통해서 겨울의 풍경을 맛볼 수 있어서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향숙 (경상북도 포항시)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사회의 귀농·귀촌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착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찾기 힘들었던 차에 ‘귀산촌 정책을 위한 첫 걸음’ 코너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근진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 전통발효식초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꿈을 꾸는 한상준 씨, 온갖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며 우리의 전통식초를 세계의 식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투지가 돋보였습니다.



김혜선 (부산시 사하구)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은 많이 봤어도 씨앗을 대출해주는 씨앗도서관은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저도 씨앗 도서관에서 씨앗을 대출 받아 직접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해주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